

에어부산, 2022년 매출 1조3천억원의 최고 LCC 목표



새 항공기 도입·신규 노선 개척

에어부산은 지난해 10월 에어버스사의 차세대 항공기인 A321neo LR(A321 LR) 항공기 2대의 2019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A321 LR의 운항 거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A321 항공기보다 최대 1천600km, 최신 사양의 A321neo 항공기보다 800km 더 늘어난 6천400km다.

이 항공기가 도입되면 김해공항을 기점으로 싱가포르, 자카르타, 인도 델리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신규 노선 개척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부산에서 싱가포르 노선을 주 2회(화·금) 운항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노선 운항은 국내 LCC로는 처음이다.

트렌드에 맞춘 스마트한 서비스

에어부산은 기존 일괄 제공하던 기내식, 수하물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변화시켰다.

기내식과 수하물을 선택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게 하되 초특가 항공권의 구매 기회를 더 늘렸다.

지난 9월에는 LCC 최초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공항 라운지를 오픈했다. 라운지에는 국내 항공사 라운지 최초로 빈백(beanbag)이 비치된 좌식 구조의 오픈 공간이 마련돼 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한 소파도 놓여 있다. ♣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 중심이 아닌 지역을 베이스로 태동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이 2018년 취항 10주년을 맞았다. 에어부산은 현재 국내선 7개, 국제선 29개 등 총 36개 정기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2014년부터 대형항공사를 제치고 김해공항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과 이용객을 보유한 항공사로 자리 잡았다.

김해공항 국내선 이용객의 41.6%, 김해공항과 대구 공항 전체 이용객 점유율은 32.9%다.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은 "중전 지역민들이 항공편 이용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됐지만, 에어부산이 이런 부담을 경감시킨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설립 10년 만에 부산 기업 중 직원 수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됐다.

2018년 상반기 직원 250여명을 신규 채용해 직원 수가 1천300명을 넘어섰다.

직접 채용뿐 아니라 에어부산 설립으로 인해 신설된 협력업체 직원 수가 500여명에 이르는 등 지역 항공사 태동으로 인한 직·간접 고용효과가 1천800여명에 달한다.

국내 LCC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에어부산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서 5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또 국내선 정시성, 안전성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이용객 대비 피해접수 건수가 적고, 소비자 관련 행정처분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